

당대 건축의 비극 모델화와 복제화

A tragedy of architecture in the present age: imitation and reproduction

FOCUS

건축은 도시를 대표하는 미적 장치이자 오브제이며 그곳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다양성과 맥락을 담는 기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네 건축물들의 적지 않은 수는 그것과 다소 거리를 둔다. 지나치게 강조되는 합리성과 실용성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일한 콘텐츠를 양산해 변별력을 잃어내지 못하도록 하며, 표준화, 규격화, 획일화 아래 마치 기계로 찍어낸 듯한 아파트나 공공건축물은 예술적 미감을 음미하기 어렵도록 만든다. 특히 내용 보다는 형식이, 미적 감수성을 자극하는 매개로 이해되기 보단 경제적 가치에 더욱 주목함으로써 건축물을 유기적인 소통의 알고리즘(Algorithm)으로 받아들이기엔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가속을 달리는 사람들의 정신적 유속이나 감성적인 편린을 담보하는 기의까지 헤아리기란 여러 면에서 무리에 가깝다.

이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서구 사회에서 조성된 포스트모던 양식이 비판 없이 이입돼 단순 복제, 모델 지향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작금의 건축물들은 우리의 지역성과 전통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이식되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상하이나 서울에서 만난 고층건물과 뉴욕 마천루 간 양자 차이란 희박하며 이는 능력치가 떨어지는 창작가들에 의해 완성된 건축물들에서 공통되게 목도되는 현상이랄 수 있다.

기실 회화나 조각가들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많은 건축가들은 잡지의 모델이든, 건축회사의 모델이든 어떤 모델을 거리낌 없이 모방(模倣)내지는 차용(借用)한다. 여기에 고유한 색깔과 독창성이 녹아 있는 경우는 드물다. 마치 엉터리 고대양식에 어설픈 창작이 뒤섞였던 산업혁명 이후 19세기 유럽을 접하는 듯 정체불명, 국적불명이기 일쑤다. 모네(Claude Oscar Monet)가 사랑해마지 않았던 영국 국회의사당과 같이 르네상스의 미와 고딕의 정신을 절묘하게 승화시킨 명작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장 누벨(Jean nouvel)이 지적한 지리적 상황, 도시적 상황뿐만 아니라 인간적 상황까지도 고려되어야 하는 동시대 건축 양식의 특성까지 발견한다는 건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은 모델화와 복제화는 창의를 생명으로 하는 이들에게 예술적 비극의 단초이자 절망을 알리는 시그널이다. 허나 그 비극은 허다못해 문화적 이상성이 배어 있다는 미술관조차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프랭크 게리(Frank Gerhy)의 대표작이자 작은 마을에 문화적 브랜드 가치를 부여한 빌바오 구겐하임을 두고 고고미술사학자인 할 포스터(Hal Foster)는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은 전 세계의 당대 건축가들에게 유사한 위업을 달성하도록 강력히 요구했다."라고 꼬집었듯 우리나라 100여개가 넘는 미술관 중 근자에 세워진 다수는 엇비슷한 모양새와 천편일률적인 구조를 답습하고 있다. 그것은 대개 미니멀(Minimal)하거나 다분히 주지주의(Intellectualism)적이다. 흡사 성형미인처럼 어디선 본 것 같을 뿐만 아니라, 감성의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으며 차갑고 인공적이다.

물론 독특한 미감을 발산하며 시공을 넘어 현대인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문화요람이 아예 없지는 않다. 일례로 풍수-토라는 자연성을 미적 테마와 자연스럽게 접목시킨 제주 두손미술관을 비롯해, 우리의 전통 보자기에서 차용한 색유리를 통해 내부로 은은하게 들어오는 다채로운 빛과 그림자의 조화가 일품인 프랑스 건축가 뱅상 코르뉴(Vincent Cornu)가 설계한 대림미술관, 인간의 인위성을 극도로 배제하여 자유로운 접근을 허락하고 있는 경남 바람흔적미술관 등은 그나마 독자성을 유지하는 사례로 손꼽힌다. 다만 수용의 범위가 아직 지나칠 정도로 넉넉하다는 게 아쉬움이라면 아쉬움이다.

눈과 정신을 회화로 기록하는 미술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건축가들 역시 건축물을 일정한 거푸집으로 보고 그것에 당대의 표정을 담으려 노력하며 나름의 개념을 그리드(Grid)처럼 얹으려 한다. 그러나 대개 이상(理想)과 포장만 그럴싸할 뿐 그 근간이 되는 창의력에 대한 수고는 모델화와 복제화를 의식 없이 추종하는 경우 보다 적다. 적어도 작금엔 그렇다.

그런데 정작 안타까운 건 그게 어떤 장르로 피어나든 대책 없는 결과물들을 매일 목도해야만 하는 현대인들에게 주어진, 그 미필적 고의에 의한 괴로움을 그들은 잘 헤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



홍경한 / Hong, Kyoung-han
월간 '퍼블릭아트' 편집장

- 추계예술대학교, 홍익대학교 대학원
- 월간 '미술세계' 편집장 역임
- Fashion Design Management Institute Italy 교수
- 문화비평서 「교향」 발간